

## 飯山市(이이야마시)의 森の家(모리노이에)를 찾아서...

- 관광에서 교류로 전환하기 위한 도·농교류 거점시설 -

최동주 박사  
(분회 사무처장)

(재)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山口 인재개발추진부장의 소개로 일본최초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한 나가노현의 이이야마(飯山)의 모리노이에(森の家)=교류터미널을 방문하였다.

1월 17일 15시 38분 도쿄(東京)역에서 나가노(長野)행 신간선(新幹線)을 타고 다시 이곳에서 16시 2분에 이이야마(飯山)선으로 갈아타고 스키장으로 유명한 토가리노자와(狩野)온천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7시였다. 역에는 민박 리조트인 무라타(村田)의 바깥주인인 기하라(木原)씨가 경차를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왔다. 자동차로 7분 정도 눈길을 지나 세키(瀬木)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메뉴는 부부가 자신의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재료로 이용한 향토 음식과 이 지역의 특산물인 말고기 사시미가 나왔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기하라(木原) 부부와 도농 교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농토가 부족하여 가장들이 추수후 겨울벌이를 위해 도시로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 지난 45년부터 민간에서 스키장을 개발하여 민박업을 시작하였다. 기하라 부부도 이때부터 스키장 이용객을 중심으로 민박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거품경제가 사라진 1990년대 중반부터 스키장 이용객의 감소와 여름에도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린투어리즘에 적극 돌입하여 학생과 가족중심의 농사 및 자연체험프로그램운용을 중심으로 도·농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다녀간 고객들의 사진과 소감을 적은 글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다.

1월 18일 아침식사 후 모리노이에(森の家) 지배인인 키무라(木村)씨가 마중을 나와 그의 지프를 타고 나베구라(鍋倉)고원으로 향했다. 모리노이에

(森の家)의 찻집에에서 키무라(木村)씨로 부터 이이야마(飯山)시의 그린투어리즘 추진현황과 모리노이에(森の家)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이야마(飯山)시는 나가노에서 북쪽으로 36km 떨어진 니카타현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 겨울철의 적설량은 3~6m 정도이다.

過小市로써 1954년도 시로 승격하였을 때 4만명에서 현재 2만 7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이 기간산업으로 농가비율은 45%(그 중 전업농 16%, 1종겸업농가가 18%)이며 농업조생산액은 124억엔 정도이며 벼식류가 52%, 쌀, 아스파라거스 순이다. 특히 아스파라거스의 재배면적은 680ha로 전국 최대의 산지이다. 국영농지개발사업은 12년에 걸쳐 개발되어 1994년까지 260ha가 개발되어 지금은 젊은 농가 그룹중심으로 메밀꽃과 라벤다 축제가 개최 될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사체험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이야마시의 농가민박은 벼식재배와 더불어 민간 스키장의 개발로 1955년부터 시작되어 170여 채가 있다. 1998년의 스키장 이용객이 1993년 보다 20%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과도기에 처하게되어 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의 경영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이 관광으로부터 도농 교류로 전환하여 그린투어리즘의 교류거점 시설, 체험시설의 정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994년부터 시 그린투어리즘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 농협(JA), 관광협회가 도시부의 농협,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총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지역관광협회와 연계된 농가민박단체는 수도권 초·중등학교 50개교의 자연 체험교실, 세컨드스쿨, 농작업체험 등을 위한 수확



여행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99년도는 도농교류에 의한 방문객수는 전체 관광방문자의 45%정도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써 시설정비사업으로 교류광장, 교류터미널, 농립어업실습관을 1994년부터 96년까지 16억 3천만엔을 투자하여 건설하였다. 이렇게 이이야마시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고야마(小山)市長의 자연의 생명력과 농촌의 생명력을 인식하고 농촌다움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가치를 인식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자긍심을 얻게는 것이 바로 도농교류(그린투어리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결과였다.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농촌과 도시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모리노이에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7년 9월에 개장된 모리노이에에는 도농 녹색교류의 센터 하우스 역할 담당하게되었다. 6ha의 부지의 중앙에 터미널 하우스와 그 주위에 5~7인이 숙박가능한 10동의 코테지와 잔디밭, 산책로, 숲가마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카누, 메밀국수만기, 짚 공예, 산나물 뜯기, 종이 만들기, 트랙킹, 식물·별·반딧불 관찰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주변의 농장을 이용한 농작업체험, 메밀밭 오네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모리노이에 운영시스템은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가능한 지도자 양성, 민박업자의 체험프로그램 인스트럭터로 육성, 각종 지역정보의 발신을 위한 스테프 9명 있다. 이중 체험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6명, 시설과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지배인 1명으로 이들은 공모에 의해 도쿄, 사이타마, 기후, 아이치 등 출신으로 이곳에 반해서 이곳에서 살수 있는 젊은이로써 지역의 특성을 상품화할수 있는 창조성과 기획력을 가진자 가운데 인간성을 보고 선발하였다. 이들은 우선 이 지역의 요리, 전통문화체험, 야외 스포츠, 산 안내인, 공예등을 지역의 노인 으로부터 배우고 이것을 다시 지역주민에게 가르쳐서 100명 시민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연계시켜 등록시켜 현재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지도자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은 모리노이에 체험프로그램 운영뿐만아니라 민박에도 체험 인스트럭터로써 파견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모리노이에에는 이이야마시의 그린투어리즘 전체 거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장점을 인식시는 것이 지역진흥, 지역 활성화의 관건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의욕을 불리일키고 있다. 또한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여관, 상가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농가는 마음이 여유와 경제적 윤택함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이야마시 8,500호의 주민과, 주위의 1만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스쿨 주 2~3회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민박업자 대상으로 계절 마다 1~2회 교육 실시하였다. 이러한 각종 교육의 출석자의 80%가 지역주민이다.

또한, 모리노이에에서는 이 지역의 농산물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 등 지역의 특산품 소개 차원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테프가 실시하고 있다. 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무게나 크기에 관계없이 1회에 일률적으로 1000엔으로 되어 있으며 품질 보증 차원에서 생산자의 이름을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 농산물 정보 발신 결과 계절별로 3,000명의 고객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이이야마시의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이 아니라 교류로써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추구하는 것은 제2의 고향, 전원 풍경이므로 아름다운 경관의 정비, 농촌·자연환경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㉔



▲ 모리노이에의 겨울철 자연관찰을 위한 크로스컨츄리 스키 코스를 다지는 압설차(壓雪車)앞에서 필자와 木村씨